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7년 포어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롬1:17, 레19:2)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안식년)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조선지서 강해 - 아모스**

하나님이 보시는 종교인들

(아모스 4:1~13
5:1~5)

원로목사 **이종윤**



인간이 보기에 자연스러운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이 안타깝게 보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만족스럽게 여기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육신사건은 인간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 가운데 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상식밖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분이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을 하셨다는 것 역시 인간으로서는 해결받지 못할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미물만도 못한 인간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1.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예배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암5:21).

우리는 자신의 종교 생활을 돌아보면서 때때로 만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사를 미워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도, 찬송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암5:24).

정의와 공의가 없이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배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와 순종과 충성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멸시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가증되고 더러운 행사가 될 뿐입니다.

2. 이스라엘의 윤리적인 죄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4:1).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한 것은 무서운 책망의 소리입니다. 소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우유를 생산해도 결코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모르는 짐승과 같은 존재로 비유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학대를 받는다는 것은 차별대우를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윤리적인 죄로 하나님께 지적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술에 취하므로 자기 상실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술에 취해서 자신을 잊기 원했습

니다. 이렇게 자신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리 없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 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4:2)

추악한 죄를 범한 사람들은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서 갈고리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낚시로 어부에게 잡힌 물고기는 물을 떠나게 됩니다. 물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말은 심판자가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3.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죄

“벤엘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벤엘은 비참하게 될것 임이라”(5:5).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며 오히려 벤엘과 브엘세바와 길갈로 가서 하나님을 찾지 말라고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쪽에서는 벤엘에서부터 북쪽에서는 단까지 신당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벤엘은 아모스가 예언을 시작한 곳이며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본 곳입니다. 그때 야곱이 서원하기를 돌아올 때는 반드시 그곳에 제단을 쌓겠다고 했습니다. 벤엘은 “하나님의 집(house of God)”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벤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매년 8월 15일을 국가의 경축일로 정해서 제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왕상12:31 이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벤엘에서 금송아지에 게 제사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너희는 벤엘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삼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누룩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자손들이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4:4-5).

벤엘은 이미 우상의 본산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돈이나 명예나 세상을 따라 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벤엘로 가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종교를 따라가지 말고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을 좇아가며 오직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운동』을 재개한다

매년마다 성도들에게 후원접수를 받았던 농어촌100교회 운동과 Vision2020 운동, 한 가정 한 선교사 운동 후원을 2017년에는 교회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박노철 목사 측이 은행계좌의 비밀번호를 불법으로 바꾸면서 시작된 은행계좌 인출불능 사태가 지속되면서 서울교회가 파송한 12개국 71명의 선교사에 대한 후원이 6개월째 중단된 바, 선교 현장에서는 피눈물로 기도하며 후원의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서울교회 당회는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운동』을 재개하여 모든 성도들과 기관, 부서가 보내

는 선교사가 되어 주님의 지상대명령에 참여하도록 하고, 선교 현지의 재정위기를 일부나마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키로 결의하였다.

1구좌는 매월 일십만원이고, 형편에 따라 1/2구좌 (월 5만원)도 가능하며, 어린이/청소년은 1구좌를 월 5천원으로 하여 교회학교 학생들도 선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서울교회 재건을 위해 모두가 기도하며 땀흘리는 중대한 시기에도, 교회 제일의 사명인 선교에 모든 성도가 동참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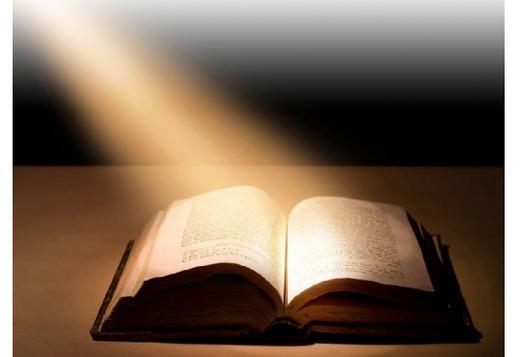


2017 성경 암송대회

범위: 베드로전서 1~5장
본선: 10월 13일(금) 오후 7시

2017년도 성경암송 본문은 베드로전서 1-5장이다. 예선은 10월 1일(주일에), 본선은 10월 13일(금) 오후 7시에 시행한다. 교육1국에 한하여 미취학부서는 베드로전서 1장을, 취학부서는 베드로전서 1-3장을 암송한다. 암송 본문은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하고, 영어번역본은 NIV(1984년 개정판) 성경으로 한다.

한편 성경암송대회 전까지 수요예배 설교를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부목사들이 설교를 하고 있다. 현재 2장 17절까지 설교하였다.



2017 여름 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중에 진행되고 있다

청년1부 : 7월 17일(월)~20일(목) / 고성 대진중앙교회
중 · 고등부 : 7월 21일(금)~22일(토) / 아가페타운

부 서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유아부	7월 23일 (주)	706호	예수님 따라 홀리! 사랑하며 Holy!	강남희 전도사
유치부	7월 30일(주) 오후2~4시	702호		
유년부	7월 28일(금)~ 29일(토)	아가페타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최근영 전도사
초등부				
중등부	7월 21일(금)~22일(토)	아가페 타운	하나님의 거룩성 회복	윤누가 목사
고등부				
청년1부	7월 17일(월)~20일(목)	강원도 고성 대진중앙교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서준권 목사
청년2부	8월14일~15일(화)	아가페 타운		

예수의 비유

대매출

(마 13:44-46)

본문에 있는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다 팔아버렸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평생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명예를, 또 어떤 사람은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바친다. 물질적, 사회적 가치는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절대적이고 영원하다. 우리는 바로 이 영원한 가치, 지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보화를 발견했을 때는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은 보화의 가치에 비례할 것이다. 성도에게 보화는 믿음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영원한 보화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는 나날의 생활이 기쁨으로 충만한 것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고 있나? 아들이 대학에 떨어지고, 남편이 실직하고, 점점 노쇠해가는 인생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심이 확실한 성도는 외형적이고 가변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근심하는 것을 제일 좋아한다. 근심은 하나님을 절대적

로 의존하지 못하고 자기를 의존할 때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감사하고 기쁘시다'라고 찬송을 불러야 한다.

본문의 두 비유는 감추어진 보화를 찾은 사람은 그것을 찾아 다녔던 것이 아니고 문득 자기 앞에 주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는 예기치 않게 교회에 발을 들여 놓고 예수를 영접하고 기쁨과 감격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진리를 찾아 헤매고 다니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다. 그러나 두 가지의 공통점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귀중한 것인가를 인식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보화로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첫째, 주님을 만난 성도들의 특징은 주님의 집을 사모한다(시 84:10).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은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다.

둘째, 주님을 만난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되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한다.

셋째, 영원한 보화를 소유한 사람은 거짓을 미워한다(시 119:127-128). 예수님이 보화인 줄 알았다면 이 보화를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

넷째,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찾아진 보화를 직접 소유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린다. 보화는 찾

았는데 그 보화를 그냥 지나친다면 그 보화는 나와 상관 없는 것이 되고 만다. 보화는 찾기도 어렵지만 그것을 소유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보화를 보유하고 찾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옛날의 편견을 대매출해야 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고전 2:14), 중생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미련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도 인간처럼 생각한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자기를 절대화하고 세상의 표준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지지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영원을 소유하고 영원한 보화를 갖기 원하는 사람마다 자기의 의를 처분하지 않고는 영생을 소유할 수 없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의를 과감하게 매출시켜야 한다. 자기중심으로 살았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고, 죄로 오염된 쾌락과 그 행위의 열매를 대매출해야 한다.

우리는 밭에 묻힌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 지금까지 소중하게 가치를 두었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사야 된다. 그것들은 영원한 가치인 천국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영은 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명처럼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이제는 상대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분만을 절대화하고 그 분만을 따르는 소중한 믿음을 사야 된다.

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에 초대합니다

예수님 따라 놀라! 사랑하며 HÖly!



김세호 집사 (유아·유치부부장)

유아부와 유치부에서는 “예수님 따라 놀라, 사랑하며 놀라”를 주제로 7월23일, 30일 주일 이틀에 걸쳐 오후 2시~4시에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거룩은 아이들에게 어려운 주제이죠. 선생님들도 준비하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에서 선악을 접하며 커 나갈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마음을 가지도록 친근하게

다가가려 합니다.

이를 위해 찬양나라, 성경학습, 미술/요리/음률활동, 놀이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신앙생활의 기초를 만들어가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저희는 다음 세대인 유아부, 유치부 어린이들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되고, 교회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여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 어린이들이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항상 힘써 주시는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아부, 유치부 어린이들이 교회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유아부, 유치부에서는 전심으로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 이번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 유아부, 유치부 문을 두드리지 못하신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저희가 706호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겠습니다.



(사진 : 조상희 집사)

중·고등부 수련회에 초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윤누가 목사 (중·고등부지도)

이번 중고등부 여름수련회가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아가페타운에서 열립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회복’(Recovery Of God's Holiness)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선생님들과 학생 임원들이 함께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서로 제안하며 참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 수련회를 기획하며 주제를 정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일정 부분 정해서 통독해보는 목표로 주제를 삼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목표를 삼을까 고민할 때 하나님은 고민보다는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한

뒤 십대의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신앙인의 기본을 생각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얻는 수련회의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수련회는 말씀의 시간뿐만 아니라 물놀이, 조별활동, 레크레이션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간 부족했던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소통과 교제의 시간도 마련하였습니다. 평소 중등부 학생들은 고등부 선배들의 이름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었고, 고등부 학생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 중등부와 고등부가 함께 참여하는 수련회를 통해 많이 친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련회를 신청한 뒤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것은 학생들 뿐 아니라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시간을 맡은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

고, 기발한 방법으로 진행해볼까 고민하고 있고, 간식을 맡으신 선생님은 맛과 영양과 함께 학생들의 만족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저 학생들을 위한 수련회라 여기고 봉사만 하는 생각을 넘어 선생님들도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은혜 받는 시간으로 삼기를 고대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은 한 달 동안 세부적인 기도제목들을 세워 릴레이로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원 일정을 하루 잠시 접고, 우선순위를 세워 수련회 참가 신청한 학생들을 보며 대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선택이 선하고 즐거운 결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수련회에 중,고등 학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에 빛진 사랑부



이강인 집사 (사랑부 부장)

지난 토요일과 주일 이틀간 열렸던 사랑부 수련회를 잘 마치게 됨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서울교회에서 제일 먼저 여름수련회를 해서인지 성도님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사랑부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일찍이 장애자에게 큰 관심과 비전을 가지셨던 손봉호 목사님이 언젠가 장애자를 사랑하는 목사야 진짜 목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아주 오래 전에 들었지만 저는 이 말이 늘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원로목사님도 늘 장애자에 대한 관심과 비전이 지극하셔서 서울교회 설립과 함께 사랑부를 개설하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랜 준비 끝에 호산나대학을 설립하고 그간 많은 배출자를 내었습니다.

사랑부는 단순히 아이들을 먹고 돌보는 부서가 아니라 저들이 바른 신앙인이 되도록 기도하고 가르치

는 부서입니다.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살아낼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수련회도 우리 사랑부 학생들이 감히 모세와 노아 같이 성경책에서나 볼 수 있는 구원의 영웅들의 믿음에 도전해 보고자 했습니다. 아가페타운으로 떠나는 날은 추적추적 비가 내렸지만 가기로 약속했던 학생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나와 우리 교사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셨지요. 또 여러분의 성도님들과 대다수의 장로님들이 아가페타운까지 오셔서 사랑부를 격려해주셔서 우리 교사들 모두 몸둘바를 몰랐습니다.

사랑부는 그야말로 서울교회의 사랑에 빛진 부서입니다. 이제 사랑부 학생과 교사들 모두 서울교회의 그 사랑을 갖기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장하겠습니다.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령을 건고케 하시리라

1. 지난 5월에 한국 성결교 교단 파송 선교사 아홉가정이 추방되고 블랙 리스트에 오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의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더욱 깨어있어 기도하며 지혜롭게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방글라데시장로교회(BPC) 산하에 있는 교회 개척 사역 및 이슬람 개종자 사역, 학교 사역 그리고 이들을 돕고 있는 엔지오(호프방글라데시) 사역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의 사랑을 널리 증거하는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방글라데시장로교회(BPC)에 속해 있는 13개 교회 20명의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충만하여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힘써 제자들 양육하고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힘쓸 수 있도록 주께서 필요를 채우시고 건강과 극렬 이슬람 세력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 북쪽 타끌가온 지역에 새롭게 바로보바니뿔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지난 5월 16일 마을 주민 18명이 세례를 받고 정식으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임시 가건물을 지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그리고 이곳에서 목회할 좋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현재 두 지역(카그라초리, 랭뚜이빠라)에 교회가 건축 중인데 두 달째 계속 많은 양의 비가 내려 건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바메이초리 교회 사택과 학교 지붕이 6월에 불어온 태풍으로 날아가 버려 임시로 천막을 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천장용 양철 및 자재를 구입해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적절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 깔리아초라 교회는 계속 내리는 비로 인해 산에서 밀려온 물과 토사로 예배당 바닥이 다 패이고 교회 지붕도 내려 앉아 비가 새고 있어 현재 목회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로 예배당 건축이 필요한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 20명의 목회자의 영적 성장과 목회 훈련을 위

해 2개월에 한번 씩 일주일간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재정을 채워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4. 초등학교 과정 7개, 중고등학교과정 5개, 방과후 학교 5개, 기숙학사 2개에서 공부하고 있는 1,800여명의 학생들과 이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80여명의 교직원들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며 이 교육기관이 방글라데시의 미래를 위한 귀한 그리스도의 일꾼을 길러내어 예수의 정신과 사랑으로 방글라데시를 변화시키는 산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종교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정부로부터의 감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다카에 있는 조이학사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8명(컬리지 학생 4명, 대학생 4명)이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잘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들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장학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5. BPC 소속 엔지오인 호프방글라데시가 이 백성을 예수의 사랑으로 잘 섬기며 도와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저희 교회들이 서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잘사는 마을”을 만드는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계와 토종계, 산란계 사육, 생명수 사육(우물과기), 여성 봉제 훈련 사역, 도서관 만들기 사역, 빈민촌 탁아방과 임산부 보건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엔지오 사역으로 인해 지역교회가 자립으로 나아가고,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6.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저희 부부가 더욱더 깨어 있어 기도하며 늘 성령과 동행하며 이 백성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 더위에 지치지 않고,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 한국에 있는 딸 예은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 교육 선교사로서의 꿈을 키워 나가기를 위해서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대학 공부를 하고 있는 아들 하경이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진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방글라데시 이경엽 선교사

동정

■ 연주회 : 4교구 백경화 권사(가브리엘 찬양대 지휘자, 당진시립예술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대구시립합창단 기획연주 「천원의 행복」 객원지휘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 8월 24일(목) 오후 7시 30분

■ 수상 : 신윤수(중등부 2학년, 신동일 성도·김정화 성도 자녀) 단재 역사퀴즈대회 단재상(대상)

■ 금주 식사제공 : 유남식 집사 강은경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김상식 집사 이순례 권사 가정 (범사에 감사하며)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7월 16일(주일)부터 20일(목)까지 진행되는 2017 하계 국내전도에 참여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을 성령 충만케 하시어 강원도 고성군 대진중앙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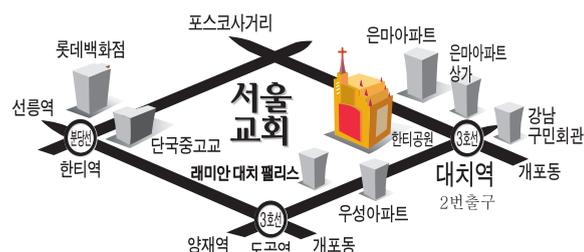
2. 7월 21일(금)부터 22일(토)까지 진행되는 중고등부 여름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세대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3. 우리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짧은이 예배	오후 2시	본 당 II, III 층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